

線條 一帶로서 下端緣帶와의 間地는 無紋이다. 이 같은 臺座로서는 日本 金銅立佛像에서 同一例를 볼 수 있는 바(小林 前掲書 第三號 釋迦如來立像) 蓮紋上에 衣紋端片이 彫刻되어 있으며 立像의 圓臺座로 推定된다. 高六cm(扶餘高校所藏)

(2) 蠟石製圓形蓮座의 約 $1\frac{1}{3}$ 片으로서 蓮臺上은 元來 方形을 이룬 것으로서 隅角에는 귀꽃形이 裝飾되어 있다. 伏蓮座는 長方形의 單蓮으로서 細線으로서 區劃하였으며 下端은 一段 좁아들어 無紋인데 元來 臺石에 插入하였던 것으로 推定된다. 一九六〇年七月二七日 扶餘舊衙里의 扶蘇山麓 鄉校 앞 寺址에서 洪再善君이 拾得한 것으로서(前號의 如來立像片 出土地點) 現高六cm 本稿에 掲載된 圖面은 國立博物館 林泉(其一、二) 朴一薰(其三……3、4、5) 兩氏의 作成한 것으로서 이 곳에 謝意를 表한다(完)

義城郡大谷寺의 靑石塔

崔 成 鳳

昨年 本誌 第二卷 第六號에서 金銅佛을 紹介할 때 言及한 靑石塔을 今 夏에 調査하였으므로 紹介하려 한다. 大谷寺는 現在 一庵(寂照庵)을 가지며 大雄殿、冥府殿、寮舍、梵鐘樓 등으로 □形의 伽藍配置를 이루고 있으며 塔은 그 中央 庭中에 安置되고 있다.

이 塔은 忠南 牙山 神心寺의 靑石塔과도 같이 塔身 및 相輪部를 缺하였고 方形의 屋蓋는 上下 蓮花臺石上에 累積되었으며 地臺石만은 花崗石으로 一段을 놓았다. 單瓣의 仰覆蓮花를 各各 二十四瓣을 彫刻한 單基壇의 上下石이 中石을 缺하면서 重疊되어 있는點 屋蓋의 手法 등 모두 같은 樣式을 이루고 있다. 屋蓋石은 十二層까지 남아 있으며 實測한 結果 總高一三〇cm(基壇石으로 부터) 下蓮臺石幅八七cm, 上蓮臺石七一cm, 第一層 屋蓋石六五cm, 第十層이 三〇cm이다. 그러나 元來 이 塔을 十三層

新資料로서 既知의 遺品과 더불어 注目할 만하다.



로 推定해 볼 때 現存 第六層이 一邊四五cm이고 第七層이 四·一五cm이니 他屋蓋石間의 比率에 對하여 縣隔한 差異를 나타내므로 本來의 第七層 屋蓋石이 遺失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바이다. 高麗에 流行한 靑石塔系에 속하는 貴重한

註 ① 本誌第一卷第一號의 鄭明鎬氏發見인 牙山 神心寺의 塔을 參照

「參考」 現存 大谷寺의 遺蹟 및 發掘된 것(建物은 除外)

○ 遺物

- 1, 靑石塔一、2, 八角竿石一、3, 石鍾一、4, 廢塔材(屋蓋一基壇石一)

○ 出土品(鐵佛)

- 1, 金銅佛二(이中一은 今夏 發見된 것으로 未發表)

彥陽 大谷里寺址의 調査

鄭 永 鎬

蔚山市에서 彥陽行며스로 一〇km 地點 泗淵里에서 下車 大谷里行 小路 約六km 步行하면 大谷國民學校이며 다시 峽谷의 溪流를 따라 一二km쯤 올라가면 彥陽面 大谷里 盤龜臺인데 俗稱 圓隱臺(註라고도 한다. 이곳 언덕